

학생 국제교류수업 기회 확대 ‘맞손’

전북자치도교육청, 캐나다 버논교육청과 협약 체결
교육정책 공유, 학생·교직원 간 교류에도 적극 협력
브리티시콜롬비아주 교육부와 교육분야 등 논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일 5층 소회의실에서 캐나다 버논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버논교육청은 브리티시콜롬비아주에 위치한 공립교육청으로, 국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캐나다와의 학생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수업 기회 확대, 교육정책 공유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책을

공유하고, 학생과 교직원 간 교류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브리티시콜롬비아주 교육 부와의 네트워크 확장 여부, 학생해외 연수 프로그램 및 교직원 상호 교류를 위한 협력 방안, 기타 협력 가능한 교육 분야 등을 논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23년 필리핀 카비테주, 미국 워싱턴주교육청, 2024년 중국 길림성교육청, 일본 KOTRA도쿄 무역관·ISCO(혁신전략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5층 소회의실에서 캐나다 버논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학생 해외연수와 국제교류수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국제교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주시곡초등학교가 학생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우리들의 위켄드’

전주시곡초, 학폭 예방 우수사례 공모 학생부문 ‘대상’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소통으로 풀어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주시곡초등학교가 학생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교육공동체의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110편이 출품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연구학교인 전주시곡초등학교가 전국 초·중·고 통합 학생 부문에서 대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주시곡초 서곡포상 10공주(김가람 등 10명, 지도교사 이현호)의 ‘우리들의 위켄드(We Can do)’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학생 간의 갈등을 토레 간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이 작품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한 결과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수상은 2024년 학교폭력 근절 분야 최우수 교육청 선정과 함께 연이은 쾌거”라며 “2025년에도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심층 진단 | 우석대,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포럼’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15일 대학 본관 5층 우석홀에서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 혁신의 쟁점 과제인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대학의 교육혁신체계 고도화’를 주제로 혁신지원팀과 교수학습지원센터, IR센터, 학생상담센터, 교양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지원센터 관계자들이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2부 포럼에서는 김선영 경남대 교육성과평가센터장이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사례를 발표했으며, 전공설계지원센터와 역량개발인증센터, 진로취업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전공자율선택제 시행을 위한 대학의 준비 현황과 역할,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한편 함운영 혁신사업단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주영 교무부처장과 최



우석대학교는 15일 대학 본관 5층 우석홀에서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박노준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아론 전공설계지원센터장, 임진선 진로취업지원센터장, 공하성 휴먼테크자율전공학부장(전주), 고현명 휴먼테크 자율전공학부장(진천)이 자율전공학부 운영 및 지원방안에 관해 토론을

이여갔다.
박노준 총장은 “포럼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방향성과 목표를 더욱 심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며 “모

두의 노력으로 일궈낸 교육혁신 프로그램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신학기 대비 늘봄학교 합동점검 나서

전북교육청, 교육부와 전주화정초·익산가온초 등 찾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일 전주화정초등학교와 익산가온초등학교를 찾아 교육부-교육청 늘봄학교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정기 부교육감과 김천홍 교육부교육복지특별지원국장 등 합동점검단

은 이들 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늘봄학교 추진 준비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14일 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김제동초, 전주가초, 이리초, 임실기림초 등 도내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현장 점검을 했다.
현장점검에서 △수요조사 현황 △공간 활용 및 안전관리 체계 △늘봄 프로그램 구성 △실무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 등을 살펴봤다.
이와 별도로 14개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에서는 2월 말까지 도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 409개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에 보완이 필요한 학교에는 전문 컨설팅과 예산을 지원하고, 개학 후에는 늘봄학교 현장 컨설팅단을 구성해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돕는 데 있다”며 “신학기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늘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전주화정초등학교와 익산가온초등학교를 찾아 교육부-교육청 늘봄학교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전주대 사범대학, ‘제1회 훈장골 인성·지성·감성 아카데미’ 개최

내달 3~7일 스타센터서… 총 60명 모집, 24일까지 신청접수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원양성과정 개신사업단은 2월 3~7일 5일간 스타센터에서 제1회 훈장골 인성·지성·감성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청춘(靑春)아카데미(樂學大業)’: 청춘, 총명(聰明)해지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사범대학 예비교사와 교수들이 도내

중고등학생과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더욱 총명해지는 지혜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가정, 종특, 한문 등 각 교과와 예비교사들이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학부모와 시민

들을 위해서는 사범대학의 교수들이 인문·예술·과학·교육을 망라한 종합 교양 강좌를 마련했다.
신청은 24일까지로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성인 20명 등 총 6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수강료는 무료다. 참여는 전주대 사범대학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사범대학 행정실(063-220-2281)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신입생 기초학력 증진, 학생중심대학 기반

전북대, 내달 24일까지 ‘새내기 학력돌봄 예비학기제’ 실시
정시 합격생까지 지원하기 위해 내달에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6주간 ‘새내기 학력돌봄 예비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비대면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수학, 물리, 화학 등 이공계 기초 과목을 다룬다. 이는 입학 전 부족할 수 있는 기초 학습을 보완해 학사 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에는 수학 과목이 250명 모집에 324명이 신청하는 등 총 973명이 지원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3개 교과목에 17개 분반의 수업을 운영중이다.
이와 함께 2월 10~28일까지 교교 연계 과목 학습을 지원하는 ‘BSM 마

스터 과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정시 최초 및 수시 합격생을 대상으로 사전 평가를 거쳐 수준별 강의를 제공하며, 이후 사후 평가를 통해 학업 성취도를 측정한다.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형태로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다.
실제수 교육혁신처장은 “예비 대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전북대가 학생 중심 대학으로 나가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과 선택과 학업 준비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시민 체육 활성화 나섰다

국립군산대, 군산시체육회와 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가 군산시체육회와 손을 잡고 시민체육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15일 국립군산대학교는 대학본부 소회의실에서 군산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최연성 부총장, 한세민 대외협력본부장 및 군산시체육회 전강훈 회장, 문창호 운영과장, 최석 사업과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각자 보유한 자원과 정보를 공동 활용해 군산체육 발전에 힘을 모을 계획으로, 국립군산대학교는 군산지역의 체육 활성화 및 육성을 지원하고, 군산시체육회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육성과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강훈 회장은 “국립군산대학교와 협력해 군산시체육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군산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적극 도우며 군산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장호 총장은 “어린아이부터 중장년층까지 생활체육 저변을 확장해서 체육을 통해 건전한 정신으로 건전한 문화들이 지역에 세팅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군산시 체육회와 협력하여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그동안 지역사회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질을 높이고 다변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대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시민 지원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이재춘 기자